

울먹인 김승원, 맞불 놓은 여야… 청문회 달군 ‘신약 로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배우자-차남 의혹 해명 중 눈물
與 “자료 유출” vs 野 “주가조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신약 로비’·‘가족 협동조합 운영’ 의혹을 적극 해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신약 로비’ 의혹 관련 불법 자료 유출을 지속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 관련자를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민원 청탁으로 허위·조작 정보에 기반한 신약이 임상 절차를 승인 받고, 주가 조작에 이용돼 수많은 투자자의 피해를 낳았다며 고위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우자·차남 이야기 하다 ‘울컥’

김승원 후보자는 배우자와 차남이 근무하는 발달 장애인 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해명하다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협동조합에서 돌보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자신의 가족 관련 질의에 답한 뒤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다. /뉴시스

죽게 되면 아이들을 믿고 맡길만한 사람으로 저의 아들이어서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아버지로서는 아이가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를 나와서 대학원 석사과정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곳에서 더 공부해서 교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의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與,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게이트’ 띄우기

김승원 후보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이해당사자의 녹취록과 검찰 내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의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아 민

주당 의원이 “한 의원이 사인(私人)의 문지를 어떻게 취득했을 것이라고 보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수사를 다 받았고 이 사건에서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저도 수사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주지 않았는데, 그런 수사 기록이 어떻게 한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이해할 수 없고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저도 법조 경력 30년인데, (수사계획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료”라며 “검찰의 은밀한 내부 자료가 한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밝혀야 한다”며 “검찰의 디넷(D-net·전국디지털수사망)엔 수사 받은 국민들에 대한 어떠한 전자정보가 숨어 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다. 장관이 된다면 보편적 인권을 위해 세밀하게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野, ‘신약 로비’ 의혹 집중 추궁

광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넨셀 임상시험에 부천·은평 성모병원이 참여한 것을 두고 “대학병원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안 좋아한다고 한다. 행정 부담이 크고 실험 과정에 부작용이 있으면 대학병원 자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인데, 두 곳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왜 가능했는지 제가 확인해봤다. 브

로커 양 모씨가 (당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만나리 당사에 간다고 하니, 김 후보자가 신 의원과 친하다면서 만나는 자리에 같이 거주했다고 했다”며 “신 의원이 카톨릭 의대 출신이고 복지위 출신”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복지위 의원이 아닌 조선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임상 승인을 빨리하라고 독촉할 수 있었을까. 중간 고리가 보니까 신 의원이었다”며 “단순 신약 사기 사건 한 건의 문제가 아니다. 브로커 양 모씨의 녹취록엔 송영길, 최재성, 김승원, 신현영 등이 다 등장을 한다. 이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임상 승인 후) 세종메디칼(제넨셀에 거액 투자)의 주자가 폭등했다가 폭락했다”며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빨리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문자한 것밖에 없다고 하지만, 개미굴에 제방이 터져 주가조작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피해자를 만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이형일 과천 아파트 ‘4개월 실거주’ 도마위

(경제부총리 후보자)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국힘, 갭투자·실거주 위장 의혹 제기
후보자 “교육 등 여건상 거주 어려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의 ‘비거주 1주택’ 자산 문제가 불거졌다.

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소유의 경기 과천 아파트 실·비거주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7년간 보유했는데 실제 거주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갭투자를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청문회 개최 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12년에 2개월, 2018년에 2개월, 주민등록 옮겨 놓고 2개월 살다가 빠지고(비거주) 또 6년 뒤에 2개월 살다가 빠지고, 이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 안 살았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전세 끼고 사서 17년 동안 바이(보유) 해 놓고 산(실거주) 건 4개월이라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재경부가) 세제개편안 낸 것도 거주한 것과 주민등록만 옮겨 둔 것을 구분하고 있지 않나. 본인이 4개월 살았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현재의 해당 아파트 시세를) 20억 원 내외로 보더라도 16억 정도 시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기준에 의하면 후보자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 세력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개월도 의심스럽다”며 “기획재정부가 세종에 있으니 대전에 있었던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과천 중앙동, 경기 안양, 서울 상도동까지 나머지 (수도권 거주) 기간이 10년 정도 되는데, 실제 살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살았다. 그대 놓고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말을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갭투자로 보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야당에서 갭투자를 얘기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갭투자를 하려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별로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당시 매매가가 어느 정도였나. 전세가와 차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당시 매매가는 4억2000만 원 수준이었고 1억1000만 원가량에 전세를 놓았다. 당시 대출 없이 매입했다”라고 답했다. 또 “살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민망한 일이라는 하다”면서도 “평생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고도 했다.

이에 문 의원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를 갭투자 방식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라며 야당 측 주장에 대해 반론을 폈다.

민주당 소속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경위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설명할 게 있으면 해 달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 자녀 교육을 어디로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천으로 일단 들어왔다”고 답했다. 이어 “인양으로 가는 것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과천에 살면서 전셋집을 구해서 나갔다”며 “신학기에 맞춰 이사를 갔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입주하게 됐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李, 18일 기자회견 열고 부동산·개헌 입장 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한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00일 만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문제뿐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된 연임 개헌·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나올 지 주목된다.

성기훈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면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 갖는 이번 기자회견은 90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모두발언, 질의응답,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해 정치·외교, 경제 등 크게 두 분야로 나눠 현안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오갈 예정이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기자 사이가 최대한 가깝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할 계획이다.

성 수석은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부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며 “기자들이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기념이나 신년 기자회견 같이 정례적으로 예정된 것이 아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서예진 기자 syj@

/서예진 기자

李, 중앙아시아와 인프라·에너지 협력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중앙아시아 5개국 릴레이 정상외교 2일차를 맞아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정상과 연이어 만났다. 이날 회담에서도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등 미래 협력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한층 호혜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

며, 이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자 이란에 머물던 국민들의 대피를 도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감사사를 표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는 철도·교통·인프라 등 분야에서 13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채택했다. 특히 인프라 분야 협력 MOU는 석유·가스화 화학산업, 건설, 교통·물류 분야 주요 프로젝트와 스마트시티·디지털 도시 인프라 개발 협력이 담겨 있고, ‘철도교통 분야 협력 MOU’는 철도교통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과 스마트·첨단 철도 분야 협력 확대를 명시했다.

산업 협력으로는 화학산업 및 플랜트 분야 협력 MOU가 체결돼 정책·기술·인력·사업을 포괄하는 협력체계와 정부·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MOU 교환식, 국민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12위 원유 생산국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경로를 통해 원유를 수출하고 있어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국가다.

이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경제·통상, 에너지·핵심광물, AI 및 과학기술, 인적·문화교류 등 양국 간 미래 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17년